



## 펀드 투자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

외환은행 영업부WM센터 PB팀장 | 김 범 석

연초이후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미 펀드상품에 가입을 해놓고 떨어지는 수익을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요즘 주위에서 손쉽게 만나 볼수있다.

주가는 글로벌 시장의 영향에 따라 연일 큰폭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고, 환율은 급등하였으며, 유가와 각종 원자재가 상승이 원인이 된 물가도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작년 여름 미국의 Sub-prime Mortgage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때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수년째 이어져 온 전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성장에 의심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고 때 마침 불어닥친 차이나펀드의 열풍에 힘입어 펀드=수익이라는 등식의 성립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아들고 증권사의 객장에서 몇십분씩 기다리는 장사진의 행렬이 낮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고, 언론에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에 관한 뉴스가 계속 흘러 나왔었다.

그래서 모회사의 이름이 붙은 펀드가 마치 국민상품인 양 대단한 기세로 시중의 자금을 모아 갔고, 실제로 펀드 통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변변한 대화의 상대로도 참여할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다. KOSPI 지수가 2000을 순식간에 뛰어넘어 조만간 3천을 바라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는 오간데 없고 지수는 1600선 마저 힘없이 내주고 그 끝이 어디일지 시험해 보고 있는 것 같다.

펀드에 대한 장미빛 환상과 대박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때늦은 절망과 후회의 한숨 소리만 들려나오고, 원금만이라도 챙기기를 바라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일까?

단지,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다. 이번 기회에 투자자들의 지난 행태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과 아울러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것이다.

저축상품이란 말 그대로 소비를 줄여서 목돈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금융 상품으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주로 고정금리가 지급되며 정기예금, 정기적금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투자상품은 원리금 보장에 대한 위험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대신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질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간의 목적자금 마련에 많이 활용되어 지고 있으며 각종 펀드와 신탁, 변액연금등의 상품이 있다.

두번째로 재무목표에 따른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겠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각자의 인생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나 목표 또한 다를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보다 빨리 은퇴를 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꿈꿀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남보다 더욱 많은 재화를 모으는게 목표인 사람도 있을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각자의 니즈에 맞는 재무목표를 수립하는게 우선일 것이며 그에 따른 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의 목적을 확실히 해야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들보다 빠른 은퇴생활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보다 많은 연금상품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많은 경제적 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주식형이나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확실한 재무목표 수립이 선행되어야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투자할수 있는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수 있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높은 수익만을 쫓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어찌보면 눈 먼 봉사가 핸들을 잡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지 않나 싶다.

세번째로 투자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투자의 목적이나 재무목표가 확실히 설정된다면 자연스럽게 투자할수 있는 여유기간을 파악할수 있게 된다.

투자의 기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투자상품에는 시장위험과 개별자산 위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자산 위험이란 특정 상품이나 자산이 갖고 있는 위험으로 이는 투자자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충분히 회피가 가능하다 할수 있다.

하지만 시장위험이라는 것은 개별종목의 문제가 아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전체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IMF 사태나 9.11테러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장위험으로 이는 개개인의 어떤 노력에 의해 회피할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연적인 극복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있다.

이 경우 투자기간을 무시하고 단기자금을 이런 유형의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볼수 밖에 없지 않을까? 즉, 여유 투자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상품의 유형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투자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네번째로 리스크(Risk)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분산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한다.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는 공짜가 있을수 있을까? 투자활동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부담도 하지 않은채 국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보다 몇배의 수익율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상품에 있어 최대의 Risk는 원금의 보장이 되느냐 여부인데, 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은 정기예금과는 달리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음에도 오직 높은 수익율에만 현혹이 되어, 가장 중요한 Risk는 외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철저한 성과형 상품인 펀드의 경우 작년과 같이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한다면 그에 상응한 수익도 클 수 있으나, 예상과 달리 하락을 할 경우에는 원금까지도 잃어버릴수 있는 양날의 칼날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누구도 앞날의 주가나 환율을 정확히 예측할수 없다는데 있다. 이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능력에 속할수 있는 문제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투자의 위험을 줄이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결국 한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는 대신 적절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 전략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걸고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투자가리 보다는 도박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섯번째로 개인의 투자는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기 보단 반드시 여유자금을 가지고 해야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상품은 원금보장에 대한 Risk를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품이다. 즉, 시장에 대한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실현할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금도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작년 전세계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일 때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밀천으로 무모하게 주식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년초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대출금리의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고, 주가는 여전히 침체의 늪속에 빠져있는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음은 누구나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이는 결국 눈 앞의 수익에만 탐을 내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게 아닐까?.

여섯번째, 주가와 금리 및 전세계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에 따른 투자의 방향을 점검할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투자상품은 그에 따른 Risk를 투자자 자신이 부담을 해야 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의 원인이 되는 시장상황에 대한 관심과 정보습득에 대한 노력은 도외시한채, 막연히 주위 사람들이나 동료들의 수익에 대한 소문에 흔들려 중요한 결정을 쉽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눈부신 발달은 전세계를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거리와 심리적 장벽을 없애버렸다.

지난밤 미국시장의 주가하락이나 금리 인하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시장의 긴축 여하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릴수 밖에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들은 너무나 많고 또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한 흐름을 잘 읽어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할수 있어야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높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과 참고 견딜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를 키워야 한다.

주가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상승하는 국면이 있으면 하락하는 날도 있고, 침체국면이 지나면 다시 호황의 날들이 찾아올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기록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시장은 비록 흔들리긴 하겠지만 결코 성장을 멈추지는 않는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IMF 사태나 9·11 테러로 인해 주식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걸 극복해 냈다는걸 알수 있을것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끈기와 시장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지 4개월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주가 상승기에는 서로 앞다투어 펀드상품을 가입하겠다는 고객들이 지금은 모두 원금만 되면 찾고 싶다고 아우성이다. 매일매일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 하기 보다는 숲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기다릴수 있는 안목과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시장의 침체속에 투자자들에게는 힘든 시련의 계절이 다가왔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언제나 그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긍정론자들의 믿음과 신뢰에 따라 움직이고 발전해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수 있다.

비록 지금 시장이 침체의 길을 걷고 있으나 새로운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의 과정으로 이해할수도 있을 것이다.

변동성을 갖지 못한 시장이라면 기대할수 있는 수익은 항상 일정할 것이며, 누구나 같은 기회를 얻을수 있을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투자의 위험을 무릎쓰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위기속에서도 현명한 판단과 그에 따른 대처를 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성공적인 투자결과를 얻을수도 있다.

투자에 있어 남들보다 위험은 적게 부담하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왕도는 따로 있을 수가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앞에서 말한 일곱가지 투자에 대한 기본 전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상황에 맞춰 적절히 재조정해 간다면 성공적인 투자의 과실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